

자료 21. 통폐합관련 언론기사

언론기사 모음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가천대학교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번 주 내에 수원지법 성남지법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이사장 김신복)이 운영하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학교의 통·폐합을 지난 7월11일자로 승인했다.
이후 통합대학교 명칭은 가천대학교가 사용되고 있다.

경원대 총동문회는 "교명 변경은 10만 동문과 1만6천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지난 4월 재학생총회에서 97%의 학생이 교명 변경
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총동문회는 통·폐합 과정에서 가천경원학원이 교과부에 제출한 동문 의견이 대표성이 없다
며

관련 자료에 대해 행정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홍경환 기자 arme99@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 정확도 최선순

전체 언론사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언론사선택



경원대총동문회 '가천대로 교명변경 반대' 연합뉴스 사회 28분전

(성남=연합뉴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가천대학교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번 주 내에 수원지법 성남지법에 내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총동문회는 "가천대로의 교명 변경은 10만 동문과...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경원대총동문회 '가천대로 교명변경 반대' 소송 연합뉴스 사회 2011.10.06 (목) 오전 11:12

경원대총동문회 '가천대로 교명변경 반대' (성남=연합뉴스)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가천대학교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번 주 내에 수원지법 성남지법에 내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총동문회는...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캠퍼스]경원대 동문회 '가천대학교' 명칭 반대 아시아투데이 사회 2011.10.06 (목) 오전 11:35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가천대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가천대학교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번 주 내에 수원지법...

관련기사 보기

경원대 총동문회, '가천대학교' 명칭 변경 불가 뉴스스 사회 2011.10.06 (목) 오후 1:08

=경원대 총동문회가 6일 오전 11시 교내 비전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경원대와 가천의과대학교를 통합해 가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것은 비민주적 절차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경원대...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경원대학교 9대 총동문회 교명변경 관련 행정소송 아시아투데이 2011.10.05 (수) 오후 7:40

([아시아투데이=배문태 기자] 경원대학교 9대 총동문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7월 11일 경원대학교와 가천의대 통합에 관한 교과부 승인이 발표되면서 경원대학교 교명변경에 관한 논의가 완료된 것으로...

관련기사 보기

뒷북 치는 것 아닌가

농성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재학생이 모이는 경원갤에서
단식 농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뒷북 친다는 이야기이다.

교수님도 이야기 하고

동문 선배인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승인 나기 전에 하지

그랬더라면 어찌면 더 좋았을 텐데

격려로 받아 들였습니다.

경원DC갤(재학생들이 모이는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뒷북친다는 견해와

동문회의 이익을 위해 하는가 보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쩡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씩 한걸음씩

전진 하고 있습니다.

=====

- 교과부 심의에 의한 대학간 통폐합과

교명 변경은 다른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교명변경은 학교의 재량에 달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힘이 모이기 시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 애써 돈들이고 신입생 모집을 가천대로 하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해주겠냐고 묻는다면 어차피 상대측은 1년전부터 통폐합을

준비 해왔고 애초에 가천대로 하려고 해왔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가천대로 하려고 한 상대방에게 왜 우리가 시기상의 선택이
늦었다는 한탄을 해야 합니까

- 학교측이 과정상 잘못을 인정 한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옳습니다.

돈 보다는 중요한것 바른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검색창 문제

다음 검색창에 대한 문제 진상 파악 중입니다.

다음 측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구두 사과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의 변경이 이루어 지면서

이것까지 된것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식적 사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 발생 했을 지라도 확인을 안한 잘못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 지기전에 미연에 사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식적인 사과문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측에서는 6일 저녁까지 원상복귀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향후 행정적 절차는 사과공문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검색](#) [뉴스](#) [사이트](#) [카피](#) [웹문서](#) [블로그](#) [게시판](#) [My소셜](#) [이미지](#) [동영상](#) [실시간](#) [소셜툰](#) [지식](#) [더보기 >](#)

[관련검색어](#) [경원대학교](#) [경원대](#)

바로가기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총동문회](#) <http://www.kw4u.co.kr/>

뉴스 [정확도](#) [최신](#)

[경원대총동문회 '가천대로 교명변경 반대' 소송](#) 4시간전, 오전 11:17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성남=연합뉴스) 최찬홍 기자 =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가천대학교 명칭 사용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번 주 내에 수원지법 성남지법에 제기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이사장 김신복)이...

[경원대 총동문회, '가천대학교' 명칭 변경 불가](#) 2시간전 뉴시스 미디어다음

[경원대 총동문회 "가천대 절대 동의 못해"](#) 1시간전 뉴스리더 [view](#)

[뉴스 더보기 >](#)

사이트 [신청하기](#)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총동문회](#)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졸업생 모임, 동문 소식, 임원진, 행사일정, 경조사 안내.
www.kw4u.co.kr [가천대학교](#) >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 [동문회](#), [동창회](#)

6일 현재 5시 수정되었습니다.

동문회 사무실을 10월 7일부로
폐쇄 하겠다는 구두 통보가 왔습니다.
사무실 비품을 들어 내고
인터넷 및 전원을 차단 하겠답니다. (동문회 사무총장이 구두로 통보 받았답니다.)

사무실 폐쇄에 대해
농성장에 찾아 온 대외협력처 직원 분에게
저희측도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제9대 경원대학교 총동문회는
아직 공식적인 동문들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실질적으로도 유일한 총 동문 대표 단체이다.
그리고 모교 또한 교명 변경이 완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 했습니다."

동문 여러분
총동문회장의 단식농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7시 임시비상총회에 동문들의 많은 참여가 바로 힘입니다.

(동문회 사무실에 게시된 기자회견문 전문)



KBS보도

법원, “경원대-가천의대 통폐합 문제없어”

경원대학교 총동문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경원대가 가천의대와 통폐합하고 학교이름을 가천대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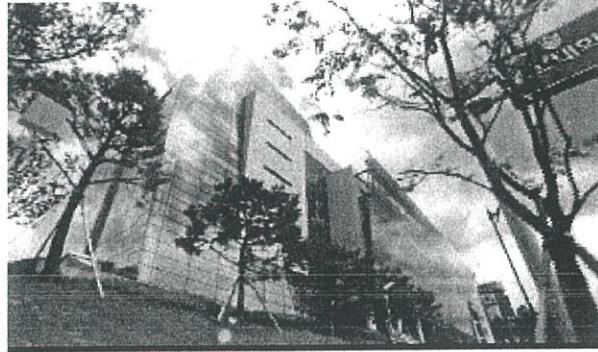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와 일부 졸업생, 재학생 등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의 통폐합 승인 처분은 교과부 장관이 적격성 등을 참작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고, 총동문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지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에 관한 보호규정은 있지만, 총동문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원대 총동문회는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고, 명칭도 가천대로 변경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동문으로 살아갈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 2012.04.08



▲경원대학교

[일간경기] 성남시가 경원대학교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재명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경원대는 시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왔고 30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남시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했다.

시는 우리 시민들의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가 14년 짧은 역사의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교명 변경을 학교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시는 "경원대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며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경원대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의 자부심"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간 통합 적법성 놓고 진통

2011-05-16 17:13:48



경원대-가천의과대,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안이 내부 구성원 반발로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교수회와 총동문회는 통합 절차가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각 대학은 구성원 다수의 찬성 의견을 수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정책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수의 의견 일치를 본 통합안이 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통합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원대, 충남대 등이 교과부의 통합 승인을 앞두고 내부 구성원 및 총동문회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이들 대학의 통합 신청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충남대 교수회는 "충남대 등 3개대 통합 후 대학본부 위치에 대한 대학간 설문 차이를 무시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통합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총동창회장을 4회에 걸쳐 8년간 역임한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은 "대학 간 통합이라는 총론은 좋지만 통합 대학 교명과 대학본부 위치 등 각론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각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 기획처는 지난 13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해 16일부터 예정됐던 3개대 통합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를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획처장은 이메일을 통해 "공주대 및 공주교대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일정을 무기연기한다"고 전했다.

■ "절차 부적절" vs "다수 동의"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경우 통합 이후 교명을 이길여 경원대 총장의 호인 '가천'에서 딴 '가천대학교'로 일원화하는 안을 두고 경원대측 동문회와 교수협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경원대 총동문회는 "이 총장이 지난 6일 캠퍼스 내 총동문회 전화를 끊기까지 했다"면서 "성남시민 등을 상대로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실 및 총장실 등을 상대로 항의전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원대 교수협의회는 "교명 변경과 관련해 32명의 보직교수로 구성된 교무위원회 표결을 거친 게 전부였다"며 "교수협의회는 교무위원회 표결 결과(경원대 1표, 가천대 26표, 기타 5표)를 접하고 교수들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학교측이 설문조사지를 무단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원대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가졌다고 반박한다. 경원대 홍보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고 직원 181명 중 1명을 뺀 180명이 서명했다. 교수는 86%가 찬성한다고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원대의 경우 이미 전문대를 성공적으로 흡수 통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가천의대와 통합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 교과부 "다수 찬성시 통합"

교과부는 이 같은 통합 대상 대학간 갈등에도 통합에 '다수결 원칙'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국립대학 통합 담당 사무관은 "100% 찬성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느 대학도 통합하지 못한다. 다수가 찬성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 다만 지역상공회의소나 지자체 등을 통해 여론 동향도 함께 받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가 원하는 대학간 통합을 소수의 반대 의견 때문에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통합 추진 대학에 인센티브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국립대 통합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하고 사립대는 컨설팅 지원을 한다. 교과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학간 통합 의지는 최근 지방대 재정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정책이 옳다는 이주호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사진설명=경원대 총동문회가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합 교명인 '가천대학교' 반대 서명운동을 경기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커스웍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 기사 맨위로

☒ 참담기

경원대 동문회, 통합학교명 '가천대' 반대

경원대와 가천의대가 '가천대학교'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경원대 총동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원대 총동문회는 학교 측이 동문회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통합과 교명 선정을 추진해왔으며 교수와 학생, 졸업생들의 반대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원대 측은 내년 신입생 수시모집을 시작하는 오는 8월 말까지 학교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경원대와 가천의대는 지난달 29일 통합 학교이름을 '가천대'로하기로 합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 신청서를 냈습니다.

입력시간 2011.05.04 (07:52) 광혜정 기자

KBS 뉴스는 <http://news.kbs.co.kr> 에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ews_webmaster

"30년 역사 경원대, 교명변경 안될 말"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학생·동문에게 큰 상처"

2011년 05월 24일 (화)

노권영 기자 nrk@kgnews.co.kr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경원대학교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 시장은 역사성과 동문들의 반대여론 등을 중시 교명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원대는 30년 역사의 성남시를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하고 "14년 짧은 역사의

가천대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부당하며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일방적 변경은 학교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 성남시민에게 큰 상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주인인 동문 등의 교명반대 주장을 높이샤 교명변경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경원대학교는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를 통합해 가천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 통합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성남의 역사와 함께한 경원대 명칭 나뉘라”

이재명 시장, 경원대 명칭 변경 반대 기자회견...경원대 ‘당혹’ 입장

뉴스리더기자

경원대가 가천의과대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남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자, 이재명 시장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는 23일 이 시장의 명의로 시청에서 ‘경원대학교 교명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요청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원대는 30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허탈감은 물론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을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경원대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며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 온 경원대가 시민의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경원대측은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으나,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동문이기도 한 이 시장이 교명 변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2020년 이내 10대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원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투데이 :: <http://www.sntoday.com>

성남투데이TM

경원대 독단적 통합교명 개명추진 ‘반발여론’ 확산

‘경원대’새 이름 ‘가천대학교’...통합교명 선정이유 알고보니 이길녀 총장의 호(號)?

경원대학교 학생·총동문회·교수협의회 등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강력 반발해

한채훈 news@sntoday.com

경원대학교(총장 이길여)가 가천의과학대학교(설립자 이길여)와의 통합 및 학교이름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대다수 구성원인 학생들과 총동문회, 교수협의회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결정·추진 중이어서 반발여론이 확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11년 05월03일 [18:39:00]

경원대·가천의과대 내년 3월 '가천대'로 통합...동문회·총학생회 반발

오세연 기자 ipress@paran.com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경원대(성남)와 가천의과학대(인천)가 내년 3월 '가천대학교'로 통합될 예정이다.

경원대에 따르면 양 대학을 통합하고 이름을 가천대로 정하는 내용의 통합안이 18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회를 통과해 19일 통합추진위원회에 상정됐다.

통합안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

두 대학이 통합되면 입학 정원은 3984명(가칭 경원캠퍼스 3544명, 메디컬캠퍼스 440명), 정원 외를 포함하면 4470명으로, 경희대와 한양대에 이어 수도권 3위로 올라선다.

경원캠퍼스는 IT 융합 및 바이오테크,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의료관광, 지식정보산업이 특성화돼 첨단분야 선도 종합대학으로 운영된다. 메디컬캠퍼스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과학대학과 연계해 의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가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통합은 처음"이라며 "연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이내 15대 사학, 2020년 이내 10대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원대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측이 재단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과 새 교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원대 총동문회는 "가천은 경원대 총장이자 가천의과학대 설립자인 이길여 여사의 호"라며 "3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학교의 교명을 호로 바꾸는 것은 학생, 교수, 동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원대 총학생회 집행부도 18일 교무위원회에 참석해 교명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입력시간 : 2011년 04월20일 [02:05:00]

경원대, 학교 이름 변경 싸고 진통

• 재단 측, 가천의대와 통합하며 ‘가천대’로 교명 변경 추진

• 학생·동문회 “대학, 개인 것 아니다” 반발… 성남시도 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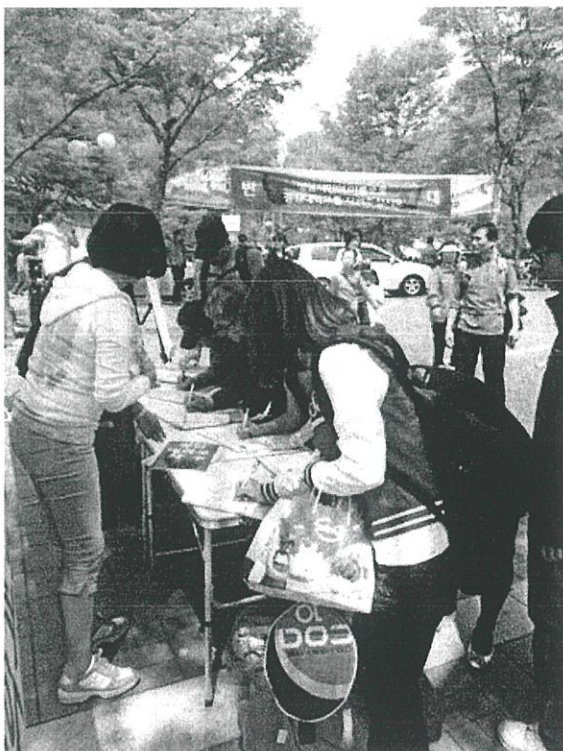
경원대의 교명 변경을 둘러싼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총동문회가 교명 변경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학생들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경기 성남시도 “성남의 역사와 함께해온 경원대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경원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쳐 경원대(성남)와 가천의과학대(인천)를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대의 교명은 ‘가천대학교’로 정했다.

두 대학이 통합되면 입학 정원은 3984명이 된다. 이 같은 통합안은 같은 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됐다. 내년 신입생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오는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새 교명 가천은 경원대 총장이자 가천의과학대 설립자인 이길여씨의 호다.



경원대 총동문회가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교명 변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 뒤로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경원대를 지켜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경원대 총동문회 제공

경원대 총동문회는 반대하고 있다. 교명 변경은 30년 전통의 경원대 역사를 없애고 10만 동문의 학적을 없애는 일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문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교명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대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조규호 경원대 총동문회장은 “대학교의 교명을 특정인의 호로 하는 것은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학생과 교수는 물론이고 동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경원대는 종합대로 학생 수가 1만6000명인 반면 가천의과학대는 단과대로 3000명에 불과하다는 것. 규모 면에서 5배 이상 큰 경원대가 가천의과학대에 흡수되는 식의 교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총학생회가 재학생 2570명을 대상으로 교명 변경 찬반 투표를 한 결과 94%가 반대했다. 성남시도 교명 변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경원대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 그리고 성남시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원대가 성남과 역사를 같이해온 학교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경원대가 교명 변경을 강행할 경우 시와 협약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교명 변경 승인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경원대와 사회·문화공헌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는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을 위해 경원대에 ‘모바일앱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한 상태다.

<최인진 기자>

성남시 "경원대 교명 변경 반대"..왜?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5-23 17:12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원대가 가천의과학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새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의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시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경원대는 지난 30년간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다.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 변경에 반대하며 교명 변경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국장은 질의답변에서 "교과부에 정식으로 교명 변경에 관한 성남시의 (승인 불허) 입장을 전달하고, 경원대와 협약 중인 사항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례적인 기자회견의 배경을 놓고 추측이 분분하다.

이 시장은 경원대 교명 변경을 한 사립대학 내부 문제가 아닌, 성남시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명에서 "경원대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 성남시민이다"고 밝힌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장은 2006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의 동문이기도 하다.

경원대 측은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당혹스럽고 불편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경원대 한 관계자는 "시립(市立)대학이 아닌 사립(私立)대학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이라고 하면서 '교과부 불승인 요청'까지 운운하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30분 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격 공지됐고 이를 통보한 홍보담당관실도 그 직전에야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교명 변경과 관련해 총동문회와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전격적인 기자회견은 학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ktkim@yna.co.kr

경원대-가천의과학대 통합, 교명 가천대 변경 놓고 진통

[2011-04-19
18:31:03]

[뉴스엔 김종효 기자]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 학교가 통합된다. 양 학교는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이다.

경원대에 따르면 양 대학을 통합하고 대학 이름은 가천대학교로 정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같은 통합안을 지난 4월 18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통과시켜 19일 통합추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안은 오는 28일 이사회 의결 후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

양 학교 학사편제는 14개 단과대학, 74개 학과(전공)로 재편되고 간호대학과 의과학대학은 단과대학으로 신설된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국내에서 이같은 규모의 통합이 처음이라면서 연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경원대 총동문회는 재단의 일방적 통합 추진과 새 교명인 가천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가천은 이길여 여사의 호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 동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총동문회와 더불어 총학생회 집행부 역시 교명을 종전대로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효 phenomdark@newsen.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봄봄◆. 무단전재 & 재배포

가천의과대·경원대,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

MOU 체결로 2012년 3월1일 새 출범

2010-12-14 17:38:46

박태진기자 [tjippo@etoday.co.kr]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원대학교가 하나의 대학으로 재탄생된다.

두 대학은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두 대학의 운영재단인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했다.

또 경원대는 지난 10월15일 지하캠퍼스 비전타워 준공식을 열면서 가천의과대와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가천의과대와 경원대가 2012년 3월1일 새로 출범하면 본교 기준 입학 정원 규모가 4500여명으로 커져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가천의과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메디컬 인프라와 경원대의 한의대, 바이오나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길여 경원대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생명·보건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린트](#) [☒ 달기](#)

가천의대와 경원대 통합 MOU 맺는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12.14 11:20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총장 이길여)와 인천 가천 의과학대학교(총장 송석구)가 14일 오후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협약서(MOU)를 교환하고 공식적인 양교 통합작업에 착수한다. 두 학교가 통합하면 입학정원이 4500명으로, 수도권 대학 중 3번째로 규모가 큰 대학이 된다.

두 대학의 통합은 2012년 3월 목표로 추진되며, 내년엔 모집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대학 신입생으로 뽑는다. 통합 학교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두 대학 운영재단이었던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 출범했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 의료·생명·보건 특성화대학인 가천의과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私學)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 프린트](#) [☒ 달기](#)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

“경원대 교명변경 반대한다”

시민동의 없는 학교명 변경은 비민주적 행태
이재명 성남시장, 교과부에 불승인 강력 요청

성남시는 21일 경원대학교가 가천 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을 갖고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

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의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

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며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성남시민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시민의 자부심 그 자체라며,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응배 기자

대한투데이

경원대 교명변경 논란... ‘성남시로 확산’

시 성명서 ‘가천대학교’로 명칭변경에 반대 입장 밝혀

성남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관내 경원대학교의 교명 명칭변경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오전 시는 이재명 성남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시민의 자부심”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

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면서 “교명 변경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인 것

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다. 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매음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돼야 한다”면서 “민주적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학생, 동문, 교

수협의회,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 성남시민이다 ▲ 경원대학교는 지난 30년동안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져왔고 앞으로도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해야 한다 ▲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불승인을 요청한다 등 4개 항목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문기래 행정

기획국장은 “경원대학교(1978년 설립, 재학생 1만6천명)와 가천대학교(1997년 설립, 재학생 3천756명)의 연혁 및 학생 수를 비교해 봐도 가천대학교의 명칭변경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경원대학교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시민의 염원이 함께한 때문”이라면서 “교명변경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경원대학교와 함께 진행기로 계획된 공동사업부분의 전면 재검토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환 기자 jk527@naver.com

경원대학교 30년 역사 지킨다

가천대학교 명칭 변경 반대, 교과부 교명 변경 불승인 요청

【성남】 성남시는 23일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명칭 변경 반대 성명서를 밝혔다.

시는 성남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는 것.

역사·전통 갖춘 수도권 중심 대 성장... 반대 성명

특히 시는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로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

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는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의 자부심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교명 변경에 대해 재학생, 동문, 교수

협의회, 성남시민의 반대의 목소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히며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을 비롯한 성남시민이며 경원대학교는 지난 30년동안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경원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와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변경에 대해 반대하며 교명 변경은 이해당사자 동의의 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건주기자

chanchu@kyungdailbo.com

일간경기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012면 지역

경원대 명칭변경 '난항'

성남시 반대성명 "30년 역사·전통 가진 市 대표대학"

"재학생 등 의견수렴도 안해...비민주적 행태" 비난

성남시가 경원대학교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재명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경원대는 시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왔고 30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남시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했다.

시는 성남 시민들의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가 14년 짧은 역사의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교명 변경을 학교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시는 "경원대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며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경원대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 시민의 자부심"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성남=김길수기자

“성남시 가천大 통합교명 반대”

〈경원대+가천의과학대〉

학교, 사립대학 문제... ‘비민주적’ 지적은 사학재단 침해

시장 성명 “성남 역사 함께한 경원대 명칭 변경 반대”

경원대가 가천의과학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새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정하자 성남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성남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의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시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시장을 대리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경원대는 지난 30년

간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다.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 변경에 반대하며 교명 변경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 질의답변에서 “교과부에 정식으로 교명 변경에 관한 성남시의 (승인 불허) 입장을 전달하고, 경원대와 협약 중인 사항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경원대 교명 변경을 한 사립대학 내부 문제가 아닌, 성남시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원대 재학생들은 학교통합과정에 가천대학교라는 학교명칭을 취소하고 경원대로 남아있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006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의 동문이기도 하다. 경원대는 이 시장의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원대관계자는 “시립(市立)대학이 아닌 사립(私立)대학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이라고 하면서 ‘교과부 불승인 요청’까지 운운한 것은 사학재단의 침해”라며 “적절하지 않은 시장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관계자는 “교명 변경과 관련해 총동문회와 시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갑작스런 기자회견은 학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성남 차도연기자

전국도민일보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002면 종합

경기 성남시는 23일 중원구에 위치한 경원대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는 “30여년의 오랜 정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지면에 있어 재학생, 동문 모두가 허탈감과 가슴이 상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다”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반

경원대 명칭 변경 반대 표명

성남시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

또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 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며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고 표명했다. 특히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 설립자 중

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나오고 있다”며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의 중심대학으로 성장해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남시민의 자부심이다”고 피력했다. 시는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교명 변경에 대하여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성남시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오민기기자

“30년 市역사와 함께... 이해당사자간 의견 반영 추진해야”

성남시, 경원대 명칭변경 제동

경원대가 가천의과학대와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새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의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재명 시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 시장은 “경원대는 지난

30년간 성남과 함께 역사를 지켜왔다.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일방적인 교명 변경에 반대하며 교명 변경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국장은 질의답변에서 “교과부에 정식으로 교명 변경에 관한 성남시의 (승인 불허) 입장을 전달하고, 경원대와 협약 중인 사항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해적인 기자회견의 배경을 놓고 추측이 분분하다.

이 시장은 경원대 교명 변경을 한 사립대학 내부 문제가 아닌, 성남시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명에서 “경원대의 주인은 재학생과 동문, 성남시민이다”고 밝힌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장은 2006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출신의 동문이기

도 하다. 경원대 측은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당혹스럽고 불편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경원대 한 관계자는 “시립(市立)대학이 아닌 사립(私立)대학의 문제를 자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이라고 하면서 ‘교과부 불승인 요청’까지 운운하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민기자/kmed7@joongbo.co.kr

전국매일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011면 행정

이재명 성남시장 “경원대학교 명칭변경 반대”

“30년 역사 지녀... ‘가천대학교’ 변경 누가봐도 부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교명변경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며 “경원대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돼야 한다”며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가천大로 변경 안 될 말”

이재명 성남시장 “경원대 교명 통합에 반대” 밝혀

【성남】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가 ‘가천대학교’라는 새 교명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일방적 교명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해 온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며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교명 변경 결정을 학

교의 주인인 재학생·동문·교수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며 성남의 자랑인 경원대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경원대학교(성남)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인천)는 ‘가천대학교’로 통합하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를 통과해 19일 통합추진

위원회에 상정됐고,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교과부에 제출돼 ‘가천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명을 이길여 경원대 총장의 호인 ‘가천’에서 딴 ‘가천대학교’로 일원화하는 안을 두고 경원대 측 동문회와 교수협회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이에 대해 경원대 관계자는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그동안 의견 수렴 차원에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직원 181명 중 1명을 뺀 180명이 서명했고 교수는 86%가 찬성한다고 서명했다”며 “성남시가 나서 교명 변경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경기신문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021면 지역

“30년 역사 경원대, 교명변경 안될 말”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학생·동문에 큰 상처”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경원대 학교 명칭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이 시장은 역사성과 동문들의 반대여론 등을 중시 교명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원대는 30년 역사의 성남시를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라고 전제하고 “14년 짧은 역사의 가

천대학교로의 명칭변경은 부당하며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일방적 변경은 학교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 성남시민에게 큰 상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주인인 동문 등의 교명반대 주장을 높이시 교명변경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한편 경원대학교는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를 통합해 가천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 통합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교과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명문사학 경원대 명칭변경 반대”

이재명 성남시장 “오랜 역사 지닌 자부심”

류명상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원대학교 명칭변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원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고 말하면서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그리고 성남시민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 지켜지고 실천돼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시민의 자부심이다. 앞으로도 성남시민과 함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매일

2011년 05월 24일 화요일 014면 사회

성남시, ‘교명변경 절대 반대’

성남시,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성남시민

시민동의 없는 가천대 변경은 비민주적

“수도권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리적 여건과 오랜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 경원대학교를 14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다” 성남시는 21일 경원대학교가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 명칭 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8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온 경원대학교는 30년의 오

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성남시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라며,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삶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대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면서 재학생, 동문의 모교가 사라지는 허탈감은 물론 성남시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교명 변경 결정을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 동문, 교수협의회 등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보직교수 32명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의 표

결에 붙이는 것은 일방적이고도 비민주적 행태”라며 경원대학교의 주인은 대학설립자도 총장도 아닌 재학생과 동문, 교수, 성남시민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은 배움의 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런 민주적 절차나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성급히 추진되는 교명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반대의 목소리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경원대학교”는 성남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도권 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시민의 자부심 그 자체라며,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 변경 불승인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남 = 권혁철 기자

매일경제

田 확대 田 축소 田 프린트 田 닫기

가천의과대-경원대 대학통합 MOU체결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가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012년 3월 1일 두 4년제 종합 대학교가 통합되면 본교 기준 입학 정원 규모가 4500여명으로 커져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두 대학교는 통합절차를 마치는 대로 2012학년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운영재단인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했다.

양 대학은 가천의과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메디컬 인프라와 경원대의 한의대, 바이오나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품생명 품보건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경원대는 지난 10월 15일 지하캠퍼스 비전타워 준공식을 열면서 가천의과대와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1998년 가천길재단이 인수한 경원대는 2007년 1월 당시 2년제이던 경원전문대와 통합됐으며 이길여 이사장이 설립한 가천의과학대학은 2006년 초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2년제)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12.14 14:54:40 입력

田 확대 田 축소 田 프린트 田 닫기

Copyright © 2007 매경닷컴(주) All Rights Reserved.

hankooki.com

 한국일보

[브리핑] 경원대-가천의대 통합 MOU 外

관련기사

경원대-가천의대 통합 MOU

경기 성남시 경원대학교와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는 14일 대학 통합을 위한 협약서(MOU)를 교환하고,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 구성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2012년 3월 1일 두 대학이 통합하면 본교기준 입학 정원이 4,500여명이 돼 서울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구로구,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내년부터 B형 간염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폴리오(소아마비), 파상풍, B형 간염, 수두, BCG, 홍역,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등 8종이다. 지금까지는 약품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접종수수료까지 구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내년 부터 지역 내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의 출생 후 1년 미만 영아 의료비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한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Hankooki.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

가천의대·경원대 2012년 통합한다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가 통합된다.

경원대학교는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함께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갔다.

2012년 3월 1일 두 4년제 종합 대학교가 통합되면 본교 기준 입학 정원 규모가 4500여명으로 커져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두 대학교는 통합절차를 마치는 대로 2012학년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재단인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했다.

두 대학은 가천의과학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메디컬 인프라와 경원대의 한의대, 바이오나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 생명 보건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학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ㅣ 기사일자 : 2010-12-15 ㅣ

가천의과대-경원대 대학통합 MOU체결

연말뉴스 기사입력 2010-12-14 14:30 최종수정 2010-12-14 15:53



가천의과대-경원대 대학통합 MOU (성남=연합뉴스)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가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오는 2012년 3월 1일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경원대 이길여(오른쪽) 총장과 가천의과대 송석구 총장이 MOU를 체결한 모습 <<지방기사참고. 경원대 제공>> 2010.12.14. hedgehog@yna.co.kr

2012년 3월 1일 통합대학 출범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가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012년 3월 1일 두 4년제 종합 대학교가 통합되면 본교 기준 입학 정원 규모가 4천500여명으로 커져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두 대학교는 통합절차를 마치는 대로 2012학년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운영재단인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했다.

양 대학은 가천의과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메디컬 인프라와 경원대의 한의대, 바이오테크,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생명·보건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경원대는 지난 10월 15일 지하캠퍼스 비전타워 준공식을 열면서 가천의과대와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1998년 가천길재단이 인수한 경원대는 2007년 1월 당시 2년제이던 경원전문대와 통합됐으며 이길여 이사장이 설립한 가천의과학대학은 2006년 초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2년제)이 통합돼 만들어졌다.

hedgehog@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818287>

인쇄하기

취소

가천의과대-경원대 대학통합 MOU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14 15:29



(성남=연합뉴스)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기도 성남 경원대학교가 14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오는 2012년 3월 1일 통합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경원대 이길여(오른쪽) 총장과 가천의과대 송석구 총장이 MOU를 체결한 모습

<<지방기사참고.

경원대 제공>> 2010.12.14.

hedgehog@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홈 > 뉴스 > 사회 > 교육

경원대·가천의과학대 2012년 통합 의미

의대·한의대·약대 모두갖춰... 단숨에 '수도권 빅3' 발돋움

2010년 12월 15일 (수)

배상록·추성남 ✉ reporchu@kyeongin.com



▲ 14일 오후 경원대학교에서 경원대 이길여(오른쪽에서 세번째) 총장과 가천의과학대 송석구(왼쪽앞줄 세번째) 총장이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성남 경원대학교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pls@kyeongin.com

[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 국내 첫 사립종합대학교간 통합으로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는 단숨에 수도권 '빅(BIG)3'로 발돋움하게 된다.

먼저 학생수에서 수도권내 대학 중 3위권으로 올라선다.

두 대학의 통합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본교 기준으로 한해 입학정원 규모가 4천500명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 대학 중 입학정원 규모가 가장 큰 경희대와 한양대에 불과 500여명 적은 수치다.

특성화된 두 대학이 만나 발생될 상승 효과도 통합대학교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의대, 바이오나노, 인문·자연·사회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갖춘 경원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풍부한 메디컬 인프라가 장점인 가천의과대가 합쳐질 경우 발생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는 국내 5대 사학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가천경원학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서는 의대와 한의대, 약대를 모두 갖추게 돼 기존 의료·생명·보건 특성화 대학인 가천의과대 시절보다 한층 높아진 특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교육 계기를 마련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선도 대학으로 발전한다는 통합 목적까지 더해져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문 사립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천경원 학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가천경원학원 관계자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의 통합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두 대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교명과 관련, 학원측은 학생들과 교직원 등 가천경원 가족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경인일보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사회 > 교육

경원대·가천의과학대 통합

2012년 '매머드급' 종합대 재탄생... 5대 사학 진입 기대

2010년 12월 15일 (수)

배상록·추성남 ✉ reporchu@kyeongin.com

[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경기도와 인천을 대표하는 성남 경원대학교(총장·이길여)와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총장·송석구)가 오는 2012년 통합돼 수도권의 '매머드급' 종합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개혁사업 이후 그동안 국·공립대학 간 통합은 있었지만 사립종합대학이 통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관련기사 3면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두 대학은 14일 오후 경원대에서 두 대학 총장과 김신복 가천경원학원 이사장 등 통합준비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

두 대학은 향후 학교 명칭과 캠퍼스 활용 계획 등을 논의하고 통합절차가 마무리되는 2012학년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가천의과학대 설립자인 이길여 경원대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생명·보건 특성화대학인 가천의과학대가 통합되면 국내 5대 사학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구 가천의과학대 총장도 "수도권에서 의대와 한의대, 약대를 모두 갖춘 대학은 3~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준다면 성공적인 통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경원대-가천의대, 통합 위한 MOU 교환

NEWSIS 기사입력 2010-12-14 15:39



【성남=뉴스시스】 김기중 기자 =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의 성남 경원대학교 (총장 이길여)와 인천 가천의과학대학교(총장 송석구)가 14일 경기 성남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대학 통합을 위한 협약서(MOU)를 교환하고,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실무추진단 구성 등 공식적인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4년제 종합대학간 법령에 의한 1대1 통합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3월 1일 양 종합대학교가 통합되면 입학 정원 규모가 4500여명으로, 수도권 대학 중 3위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양 대학교는 통합 절차를 마치는 대로, 2012학년도부터 통합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양 대학의 운영재단인 가천학원과 경원학원은 대학 통합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가천경원학원으로 통합 출범했다.

양 대학은 가천의과대의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소, 암당뇨연구원 등 메디컬 인프라와 경원대의 한의대, 바이오테크, 인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천의과대 설립자이기도 한 이길여 경원대 총장은 "수도권 남부 최대 대학인 경원대와 국내 최고의 의료·생명·보건 특성화대학인 가천의과대가 통합하면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5대 사학에 진입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은 "수도권에서 의대와 한의대, 약대를 모두 갖춘 대학은 3~4개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는 두 대학간 통합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k2j@newsis.com

[뉴스스 이시간 핫 뉴스]

- [종합] '한파 몰려온다'...15일 서울 아침 -11도
- 딸이 40살 연상 남자친구 사귀는데 격분한 獨 아버지, 남자친구 직접 거세
- '형님예산' 비판 봇물... "권력남용이란 썩은 종기 짜내야"
- [뉴스스아이즈] 경희대 음대에 대체 원일이 있었나
- 뉴라이프론, 서민대출시장의 대안 될까
- 연말천사의 재림...김장훈, 10억원 기부
- 수애, 국세청 요원?... '아테나' 시청가이드
- [종합] 투기의혹 황의돈 육군총장 사의...청와대 수용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스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스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3588948>

인쇄하기 취소

홈 > 뉴스 > 사회

등록금, 호화축제에 흥청망청

경원대총동문회 통합교명반대 이길여 총장퇴진서명 와중에 연예인 불러다 호화축제

2011년 05월 16일 (월)

류명상 ✉ daehanmail@naver.com

류명상 기자 / 경원대 총 동문회는 타대학 등록금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연예인을 불러다 호화축제를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며 폭로 했다.

경원대는 지난 12일과 13일 대동제 행사에 f(x)를 비롯해 2NE1, 레인보우, 아이유, 지나, 싸이, DJ DOC, 싸이, 슈퍼팀, UV, 세븐 등 최근 가장 인기있는 가수들을 무대에 세웠다.

축제에 초청된 가수는 12명이고 추첨을 통해 관객에게 DSLR 카메라, 아이팟, 넷북, USB, 외식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의 경품증정행사까지 진행됐다.

대학축제가 대학생들이 학과간의 토론의 장을 벌이고 학생모두가 아카데미즘으로 어울려 즐기는 행사가 아닌 '호화 연예인 공연' '대학기업의 홍보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대해 이번 호화축제는 통합반대운동을 몰타기 위한것이라고 총동문회는 주장하고 있다.

경원대는 지난달 29일 교과부에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합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학교이름을 '가천대'로 변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총동문회가 강력반발하여 지난달 28일 학교 비전타워앞에서 '학교측은 밀실통합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와 소통에 나서라'며 동문재학생간 반대 집회를 실시 했다.

학교측의 아무 반응이없자 한층 수위를 높여 지난 5일에는 남한산성에서 성남시민들과 네티즌을 상대로 온라인서명(www.kwvote.com) 교명반대 및 이길여총장 퇴진 서명을 벌여 하루만에 무려 2,500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결국 교명을 이길여 총장의 호인 가천대로 변경하기위한 입막음용 공연이란 것이다.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출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돼야할 등록금 예산이 하룻밤의 호화축제로 증발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흥청망청한 대학축제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연예인 출연료에 대한 세원 관리 차원의 사실상의 세무조사에 돌입한바 있다.

국세청은 서울시내 대학교 등에 서울시내 4년제·전문대학 학생처에 연예인 출연료 현황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연예인에게 지급한 출연료와 원천징수세액, 계약서 유무, 섭외방법, 대행업체 사업자번호, 대금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뒤 회신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당시 CBS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교 아이돌 가수 출연료는 빅뱅이 4천500만원, 2NE1과 소녀시대가 2천500만원 이상, 2PM 2천500만원, 비스트 1천700만원, 카라 1천600만원 이상, 티아라 1천600만원, 시크릿 1천400만원 등으로 기본 1천만원 이상이다.

경원대 축제가 아이돌 가수기획사들의 돈벌이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원대축제가 학생들의 산적한 문제인 고액등록금 문제와 취업대란을 망각한채 대학축제의 낭만은 사라지고 가수공연장화하여 동문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세무당국의 관심과 아울러 연예인들의 과도한 출연료가 정상화되고 탈세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 대한매일신문(<http://www.dhmai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